

朝鮮後期の 職業觀

安 秉 直

한국인의 직업관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既存研究가 거의 없는 상황속에서 肯定的 및 否定的 평가가 극단적으로 對立되어 왔다. 이 연구는 그 평가의 基準이 될 수 있는 한국인의 직업관의 原型을 조선후기의 實學者들의 직업관에서 찾아 보았다. 東아시아의 傳統的인 직업관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職分觀, 生業觀 및 天職觀을 각각 검토하여 보았는데, 직분관에 있어서는 士農工商의 身分의인 것을 극복하고 技能的인 것이 정립되고, 생업관에 있어서는 家와 家計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이 정립됨으로써, 근대적 직업관이 전개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으나, 천직관에 있어서는 天命에의 適從的인 것이 있었을 뿐 積極的인 職業選擇의 契機를 추구하게 하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特徵은 오늘날의 한국인의 勤勉觀에 있어서도 그 構成要素間的 相關關係가 낮은 데서 보여지고 있다. 고임금체제에 걸맞은 근대적 天職觀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왜 직업관이냐 하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래의 고도성장으로 近代化에는 성공했으나, 1980년대 중엽 이후의 先進化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 근대화과정에 있어서는 有效하게 작용하였던 경제성장의 요인이 선진화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이미 그 有效性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喪失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간에 한국경제발전의 요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探究되어 왔다.

(1)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추구되어 온 後發性利益論, (2) 국민경제론적 시각에서 추구되어 온 小農社會論 및 (3)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경제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政府役割論 등이 그것이다.⁽¹⁾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경제론적 시각에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요인으로서 朝鮮後期の 소농사회에서 發生하고 식민지기 이래로 형성된 '低廉한 良質의 勞動力의 賦存'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²⁾

(1)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韓國經濟發展의 要因을 탐구한 최근의 연구로서는 安秉直·金洛年, "韓國における經濟成長とその歷史的諸條件" (『鹿兒島經大論集』 第38卷 第2號, 1997년 7월)과 Gi-Wook Shin, "Agrarian Conflict and the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3 No. 5 (March 1998)를 들 수 있다.

(2) 한국경제발전의 요인으로서 "低廉한 良質의 勞動力의 賦存"을指摘하는 연구는 많으나,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한국인 노동력의 歷史的 特質에 관한 연구로서는, "國民職業能力申告令'資料의 分析" (安秉直外編, 『近代朝鮮工業化의 研究』, 一潮閣, 1993) 등 筆者의 약간의 논문이 있다.

人的 資源 이외에는 뚜렷한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는 경제발전의 요인으로서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의 부존'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1930년대의 식민지기의 공업화에 있어서나, 1960년대 이래의 근대화에서나 자기에게 맡겨진 使命을 그 나름대로 수행한 업적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진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歷史的 使命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1980년대 중엽 이후의 선진화로의 移行過程에 있어서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은 경제발전의 요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有效性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987년의 6·29 民主化宣言 이후 高賃金體制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임금상승에 대처하기 위하여 設備投資는 크게 강화되었으나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실질임금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임금체제 하에서 한국인의 노동력은 이제 더 이상 '양질의 노동력'이라고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것이 1997년말 이래의 경제위기의 原因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간 한국경제발전의 基本要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온 노동력의 特質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한국인 노동력의 특질에 관해서는 종래 상반되는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하나는 植民地期의 일본인 연구자들의 인식인데,⁽³⁾ 거기에서는 주로 한국인 노동력의 부정적 특질이 강조되었다. 怠惰, 責任感의 缺如, 無規律, 移動性, 非衛生性 및 常識不足 등. 다른 하나는 1960년대 이후의 한국인 연구자들의 認識인데,⁽⁴⁾ 거기에서는 주로 한국인 노동력의 肯定的 側面이 강조되었다. 勤勉性, 獻身性, 規律性 및 높은 教育水準 등.

위와 같이 보면, 두 가지의 인식은 완전히 相反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두 認識은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금 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두 인식간에는 共通된 면도 있다. 한국인 노동력의 특질에 대하여, 일본인 연구자들은 그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올바른 지도가 있기만 하면 工業勞動力으로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인 연구자들은 그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공업노동력으로서도 아직도 不足한 면이 많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두 인식의 差異點은 量的인 것에 불과하고 質的인 것은 아닌가. 분명히

(3)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인식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서는 趙景達, "朝鮮人の 勞動觀 — 大韓帝國期を中心に—" (『はたらく在日朝鮮人』, 新幹社, 1991) 등이 있다.

(4) 이에 관한 연구로서는 金正錫, "韓國의 企業(經營)文化" (韓義泳 佐護譽編著, 『企業經營과 勞使關係의 韓日比較』, 서울大學校出版部, 1993) 등이 있다.

위의 두 인식간에는 양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인 연구자들의 인식은 近代教育이 아직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工業化의 經驗도 없었던 시기의 그것이었으며, 한국인 연구자들의 인식은 高等教育이 널리 보급되고 公業化의 경험도 가지게 된 시기의 그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두 인식은 질적으로도 동일한 것이었던가.

두 인식이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두 인식은 한국인 노동력의 특질에 대한 現狀分析에서 얻어진 것이며, 그러한 현상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인의 노동의식의 原型에 관한 탐구 없이 획득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인의 노동의식의 원형에 관한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것이 朝鮮後期の 實學者들의 職業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후기는 거기로부터 근대사회가 형성되어 나온 韓國傳統社會의 形成期였고, 실학은 그러한 한국전통사회의 개혁을 위한 構想이었기 때문이다.

이상이 왜 직업관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1. 職業觀形成의 背景

최근에 16세기 이래의 朝鮮後期社會에 관한 연구는 劃期的으로 발전했다. 특히 경제사, 사회사 및 사상사에 관한 연구의 발전이 뚜렷한데, 이들에 의하면 조선후기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였다. 조선후기의 새로운 歷史的 動向으로서는, (1) 상품경제의 발전, (2) 均質的 소경영농민의 성립, (3) 지주제의 전개, (4) 在地兩班層의 등장 및 (5) 실학의 발전 등인데, 이러한 동향은 조선후기사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사회발전의 有力한 擔持主體는 이 시기에 새로이 등장한 재지양반층이었다. 그들은 이 시기의 사회발전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 담지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 存在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遂行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조선후기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關鍵的 問題였다. 그들이 변화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世界觀을 가질 것이 요청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의 실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는 데 失敗하고 만다.

이하에서는 조선후기의 재지양반층의 形成過程과 그들의 遊手 遊足化를 살펴봄으로써 실학자들의 새로운 직업관이 出現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1. 兩班社會의 成立

조선후기의 양반층은 서울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在京兩班과 지방에 거주하는 在地兩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경양반층은, 조선전기 이래로 首都와 그 부근에 거주하면서 대대로 仕宦을 주업으로 하고, 科田法이나 職田法하의 收租地分給에 그 물질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재지양반층은, 16세기 이후에 등장하여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 세력이 증가해간 新進士大夫層으로서 초기에는 관직으로 활발하게 진출하였으나 후기로 올수록 점점 사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양반층은 본래 사대부층으로서 사환을 하는 大夫가 아니면 관리의 豫備軍으로서의 독서층인 士로서 존립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모습이다.⁽⁵⁾ 그런데 조선후기에 仕宦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재지양반층이 점점 성장해 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만한 특별한 背景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재지양반층의 성장은 地主制의 전개와 그 軌를 같이하고 있었다. 16세기 중엽까지는 國家的 土地所有의 原則에 입각하고 있던 科田法과 職田法이 廢止되는데, 지주제는 자립적인 小農民經營의 성장을 토대로 밑으로부터 이러한 국가적 토지소유제도의 機能을 제약하면서 활발히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지주제의 발전은 재지양반층에 의한 農地開發에 의하여 推進되었다.⁽⁶⁾ 조선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田結總數에 의하면, 15세기 초보다 16세기 말에 전결총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三南地方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의 전결총수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들 지방에서 전결총수가 증가한 것은 재지양반층에 의한 山間平野部와 沿海部의 農地開發에 의한 것이었다. 농지개발과 더불어, 洑를 중심으로 하는 수리시설도 보급되고, 種稻法으로서의 移秧法도 보급되어 갔다. 이러한 지주제의 발전이 바로 재지양반층 성장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것이다.⁽⁷⁾

재지양반층의 성장은 새로운 村落形態로서의 同族村의 형성으로도 나아갔다. 재지양반들은 科擧에 합격했거나 당대를 대표할 만한 高名한 학자를 先祖로 모시고 數代에 걸쳐서 같은 촌락에 집단적으로 거주함으로써 世居地를 형성하여, 이를 그들의 세력기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宗家를 중심으로 하는 宗法秩序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세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리하여 조선후기의 지방사회는 특히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이들 재지

(5) “讀書曰士，從政爲大夫，有德爲君子，武階列西，文秩叙東。是爲兩班。” 朴趾源，「兩班傳」(『燕岩集』，慶熙文化社，1966. p. 119).

(6) 宮嶋博史，『兩(ヤンバン)班 — 李朝社會の特權層 —』，中公新書，1995의 “第四章 開發の時代”를 참고하라.

(7) 宮嶋博史，前掲書，“第三章 在地兩班層の經濟的基盤”을 참조하라.

양반층에 의하여 지배되게 된 것이다.⁽⁸⁾

이렇게 하여 형성된 재지양반층은, 18세기 중엽에 들어서게 되면, 본래 그들이 분화되어 나온 鄉吏層에 의하여 그 特權的 地位를 挑戰받게 된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들어오면 재지양반층은 사환의 길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데 대하여, 향리층들은 그들의 職位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18세기 중엽에 들어서면, 商品經濟와 小農民經營의 자립성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제는 향리층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반상민층 중에서도 양반으로서의 上昇을 지향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향리층과 일반상민층이 양반층으로의 上昇을 지향한 결과 18-19세기 전반기를 통하여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양반층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다. 戰前의 京城大學教授였던 四方 博의 大邱戶籍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⁹⁾ <表 1>, <表 2>에

(8) 아래 자료는 삼남지방에서 재지양반들이 世居地를 기반으로 地方社會를 어떻게 支配하고 있는지를 嶺南地方을 예로 잘 설명하고 있다.

“右擇里志一卷，故正字李重煥之撰論國內士大夫莊墅之美惡者也。……國中莊墅之美，唯嶺南爲最，故士大夫於時數百年，而其尊富不衰。其俗，家各戴一祖占一莊，族居而不散處，所以維持鞏固，而根本不拔也。如李氏戴退溪占陶山，柳氏戴西崖占河洄，金氏戴鶴峯占川前，權氏戴沖齋占鶴谷，金氏戴開岳占虎坪，金氏戴鶴沙占五峯，金氏戴柏巖占鶴亭，李氏戴存齋占葛山，李氏戴大山占蘇湖，李氏戴石田占石田，李氏戴晦齋占玉山嶺派占楊子谷，張氏戴旅軒占玉山，鄭氏戴愚伏占愚山，崔氏戴詡齋占海平之類，不可勝數。” 丁若鏞，「跋擇里志」(『增補與猶堂全書』一，景仁文化社，1970, p. 297).

(9) <表 1> 身分別 戶數와 그 比率

	兩班戶		常民戶		奴婢戶		總數	
I 期	290戶	9.2%	1,694戶	53.7%	1,172戶	37.1%	3,156戶	100%
II 期	579	18.7	1,689	54.6	824	26.6	3,092	100
III 期	1,055	37.5	1,616	57.5	140	5.0	2,811	100
IV 期	2,099	70.3	842	28.2	44	1.5	2,985	100

註: 1) 각기의 연도는 다음과 같다.

I 期: 1690, II 期: 1729 · 1733, III 期: 1783 · 1786 · 1789, IV 期: 1858

2) II 期와 III 期가 복수의 연도로 되어 있는 이유는 같은 연도의 各面資料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資料: 四方 博,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朝鮮社會經濟史研究』中, 國書刊行會, 1976, pp. 125-126).

<表 2> 身分別 人口數와 그 比率

	兩班戶		常民戶		奴婢戶		總數	
I 期	1,027人	7.4%	6,894人	49.5%	5,992人	43.1%	13,913人	100%
II 期	2,260	14.8	8,066	58.8	4,940	32.4	15,266	100
III 期	3,928	31.9	6,415	52.2	1,957	15.9	12,300	100
IV 期	6,410	48.6	2,659	20.1	4,126	31.3	13,195	100

資料: 四方 博, 前掲論文, pp. 144-145.

서 보는 바와 같이, I기, II기, III기 및 IV기에 걸쳐서, 兩班戶數는 9.2%, 18.7%, 37.5% 및 70.3%로, 兩班人口數는 7.4%, 14.8%, 31.9% 및 48.6%로 각각 그 比重이 급격히 커지는 데 대하여, 奴婢戶數는 37.1%, 26.6%, 5.0% 및 1.5%로 그 비중이 크게 작아졌다. 인구수에 있어서도 노비는 緩慢한 減少를 보이고 있으나, 常民은 IV기에 크게 줄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세기와 19세기 전반기를 통하여 호수 및 인구의 양면에 걸쳐서 양반은 크게 증가한 데 대하여 常民과 奴婢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것이 양반사회성립의 基礎的 條件이었다. 그러나 이 조건만을 가지고는 양반들이 지방의 支配層으로 되거나 양반사회를 형성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적어도 양반들이 지방의 지배층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 고유의 文化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후기의 양반들은 新儒學인 朱子學을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 이것을 지방사회에 정착시킴으로써 자기의 文化를 건설해 갔던 것이다. 이로부터 兩班指向社會 즉 양반사회가 성립한 것이다.

1.2. 遊手·遊足の 增加

그러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地方社會의 지배층으로 등장한 재지양반층은 새로운 역사의 발전방향과 適合的이며, 그럼으로써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재지양반층이 그들이 創出한 지주제에 安住하면서 오직 이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어가는 中央官僚로의 진출에 매달림으로써 새로운 역사발전의 방향과도 배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 사명도 다하지 못하게 되고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는 그들이 받아들인 新儒學이 본래에 어떠한 성격의 학문인가를 따질 겨를은 없다. 다만 여기서는 그들이 신유학을 자기들의 教養과 중앙관료로의 進出手段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인 신유학을 보급하기 위하여 書堂·書院 등의 私立教育機關을 확장해 나갔다.⁽¹⁰⁾ 그뿐만이 아니라 鄉約의 施行등을 통하여 신유학의 이데올로기를 大衆化하기도 하였다.⁽¹¹⁾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확실히 조선후기에 그들 나름의 새로운 文化를 건설해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文化는 조선후기의 역사발전방향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의 文化가 현실의 역사발전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 서당·서원의 교육에 관해서는 丁淳佑, "17世紀 書堂經營과 鄉村支配層의 動向" (『教育理論』 제1권 제1호, 1986)을 참조하라.

(11) 宮嶋博史, 前掲書, pp. 129-137을 참조.

그들은 人文學을 崇尚하는 나머지 技術學은 賤視했다. 이것은 중앙관직에 있어서 기술직이 中人이나 중사하는 雜職으로 위치지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인문학을 숭상하고 기술직을 賤視하는 풍조는 상공업등 산업의 발전이 요망되던 역사발전방향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둘째, 그들은 중앙관직을 지향하면서 기술직과 지방의 實務職은 천시했다. 앞에서도 누누히 지적한 바와 같이 재지양반층은 그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갔기 때문에 數的으로 제한된 중앙관직의 길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직 이 길을 固執한다는 것은 實現不可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威脅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지방의 실무직을 향리들에게 맡김으로써 지방권력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그들의 상공업을 천시하는 末業觀은 상공업의 발달이 시대적 요청인 조선후기의 사회발전의 最大의 걸림돌이었다. 그들의 商工業賤視觀은 기술·실무직천시관과 軌를 같이하는 것이므로 그들 스스로를 현실로부터 점점 유리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말업관은 결국 그들의 학문을 현실문제로부터 동떨어진 理氣哲學이나 吟風弄月の 詩文學으로 전락케했던 것이다.

넷째, 그들의 기술직, 실무직 및 상공업에 대한 賤視思想은 모든 실무를 천시하는 風潮를 造成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그들의 생활기반인 地主經營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는 생활태도를 형성하였다. 조선후기의 지주제는 그것이 딛고 서 있는 소경영농민의 不安定性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 토지관리가 매우 소홀했기 때문에 불안정하기도 했다. 지주의 소유지는 한 곳에 集中的으로 存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筆地別로 널리 흩어져 있었는데, 심지어는 他郡 및 他道에까지 分散되어 있었다. 그리고 토지관리는 지주 스스로가 담당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下人들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지배층으로 성장한 재지양반층은 儒敎的 教養을 닦아서 오직 중앙관료로 나아가는 한 길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과 생활은 매우 固陋할 수밖에 없었다.⁽¹²⁾ 그들은 실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실에 대하여 매우 어두웠

(12) 燕岩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세계동향에 어두운은 물론 학문에 있어서도 오직 性理學을 崇尚함으로써 利用厚生之學에 대해 무지함을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雖以舜孔子之聖且藝，卽物而朶巧，臨事而製器，日猶不足，而智有所窮，故舜與孔子之爲聖，不過好問於人，而善學之者也。吾東之士，得偏氣於一隅之士，足不蹈函夏之地，目未見中州之人，生老病死，不離疆域，則鶴長烏黑，各守其天，蛙井蚰田，獨信其地，謂禮宰野，認陋爲儉，所謂四民，僅存名目，而至於利用厚生之具，日趨於困窮，此無他，不知學問之道也。” 朴趾源，

으며, 더구나 나라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世界動向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風俗만을 좋은 것으로 믿어서 가난한 것이 오히려 禮에 맞다고 하고, 고루한 것을 검소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과 생활은 재지양반층의 遊民化를 촉진하였다. 재지양반층은 지주제를 그들의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지주제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다.⁽¹³⁾ 그리고 그마저도 모든 양반들이 지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재지양반층의 증가는 지주제의 발전을 동반하였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 그것은 遊手 遊足層의 증가로 나타났던 것이다. 18세기 후반기에는 이들 유수·유족층이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遍滿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⁴⁾⁽¹⁵⁾

유수·유족층의 증가는, 그 자체로서 國富를 虛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무익한 黨派를 결성한다거나 土豪로서 行悖를 자행함으로써 크게 풍속을 해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수·유족층의 보다 큰 弊害는,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外家살이, 妻家살이, 行廊살이 및 門間살이 등 지주나 유력자애의 依賴層을 量產함으로써 비자립적 농민계층을 양산한다는 데 있었다.⁽¹⁶⁾ 1900년대의 光武量案의 분석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더부살이는 挾戶라는 이름으로 검출되는데, 충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¹⁷⁾ 이 시기의 노동윤리에 관한 교과서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警戒되고 있었다.⁽¹⁸⁾

「北學議序」(前揭書, p. 105).

(13) “世俗指買田置庄者, 爲朴實牢固人, 以土田者, 風不能飄之, 火不能燒之, 盜不能攘之, 歷千百年, 不弊壞損傷, 故凡置此者, 其人爲牢實云耳. 然余觀人土田之券契, 查其來歷, 每百年之內, 易主輒至五六, 其甚者七八九, 其性之流動善走如此, 獨安冀其輕於人而久忠於我, 恃之爲損撲不破物乎.” 丁若鏞, 「爲尹鍾心贈言」(前揭書, p. 370).

(14) “夫遊食者國之大蠹也. 游食之日滋, 士族之日繁也. 此其爲徒, 殆遍國中, 非一條科宦所盡也. 必有所以處之之術然後, 浮言不作, 國法可行. 臣請凡水陸交通貿販之事, 悉許士族入籍, 或資裝以假之, 設廬以居之, 顯擢以勸之, 使之日趨於利, 以漸殺其游食之勢, 開其樂業之心, 而消其豪強之權, 此又轉移之一助也.” 朴濟家, 「丙午所懷」(『北學議』, 乙酉文化社, 1971, p. 372).

(15) “或言海西蝗, 官督民捕之. 翁問捕蝗何爲. 曰是虫也, 小於眠蠶, 色班而毛, 飛則爲螟, 緣則爲蝻, 害我稼穡, 号爲滅穀, 故將捕而瘞之耳. 翁曰此小虫, 不足憂. 吾見鍾樓填道者, 皆蝗耳. 長皆七尺餘, 頭黔目焚, 口大運拳, 啞啞偶旅, 蹠接尻連, 損稼殘穀, 無如是曹, 我欲捕之, 恨無大砲. 左右皆大恐, 若真有是虫然.” 朴趾源, 「閔翁傳」(前揭書, p. 117).

(16) “且朝鮮士族, 自有一種風味, 不與他渾, 抵死, 但當堅座本處, 以待自盡. 量肥較瘠, 辟餘趣稔, 轉徙四方, 或從其母鄉, 或從其妻黨, 流離宛轉, 行色悽慄, 錐刀之利未享, 剗割之辱先及, 進退無據, 狼狽罔措, 蹉跎洿泥, 遂陷忙隸之賤, 特指顧之頃耳. 我明語子, 但使連谷之家, 屋梁不壞, 田疇不損, 雖不科不宦, 且得百年體貌. 若使連谷不保, 賢輩皆失陰之鹿, 涸轍之鮒也. 念念勿緩, 翊之護之, 如周之共和, 豈不善哉.” 丁若鏞, 「爲尹鍾文鍾直鍾敏贈言」(前揭書, p. 371).

(17)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제3부를 참조하라.

(18) “高樓巨閣달삼마소, 집안식구의 모힌 곳은 草家三間이라도 我家이니, 사람답기 我집맛게 있

총괄적으로 말하면, 16세기 이후 지방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한 재지양반층은 山間 平野部 및 沿海部の 토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農法을 導入함으로써 지주제의 전개를 도모하는 한편, 세거지를 중심으로 서당 및 서원 등의 교육을 통하여 新儒學을 대중화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전개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支配層으로 발전하였으나, 그들은 그들이 창출한 지주제에 安住하면서 성리학에 몰두, 오직 중앙관직으로의 進出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要請에 副應하지 못했다.

새로운 시대의 요청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크게 보아 다음의 두 가지였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상공업, 특히 商業의 發展이었다. 한국에서는 조선후기에 들어와 비로소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定期市인 場市를 중심으로 하는 행상이 대부분이었고, 定住商人으로서 서울의 市廛商人이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확실한 상인계층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더욱이 새로운 시대의 지배계층인 재지양반층은 상업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상업의 발달을 도모하기는 커녕 末業觀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沮止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재지양반층은 그 屬性上 본래 중앙관직으로 나아가 收租地로써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웠으므로, 소경영농민과 지주제의 안정을 도모하여 생활기반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술이나 실무의 習得을 천시함으로써 농업경영은 물론 토지관리에도 매우 소홀함으로써 소농민경영과 지주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沒落한 재지양반층은 외가살이, 처가살이, 행랑살이 및 문간살이 등의 더부살이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재지양반층의 증가는, 한편에서는 소농민경영의 自立과 지주제의 發展을 동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遊手·遊足層의 증가를 결과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유수·유족층이 전국적으로 편만하게 되고,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은 停滯됨으로써 貧困이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할 제1차적 과제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에 18세기에 들어와 재지양반층의 이데올로기인 性理學에 대립되는 새로운 학풍으로서 實學이 대두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학은 과연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인가. 다음으로 실학의 職業觀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는가. 집이 아모리 도하도 가족이 화치아니하면, 질거움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화합이 貴하나라. 그러하나 行廊살이 못쓸지며, 挾戶(곁방)살이 못쓸지니, 걸고쓰러져도 一家(한집)은 獨立하는 門戶를 立(세)을지요 남의게 부쳐서난 못쓰나니라.” 兪吉濬, 『勞動夜學讀本』, 京城日報社, 1908, p. 14.

2. 職業觀의 諸類型

우선 신유학을 숭상하는 性理學者和 18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實學者간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던가. 양자는 모두 조선후기에 형성된 재지양반층에 속하고 중앙관직으로의 진출을 기본적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양자간에는 階級的 差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간에는 學風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전자는 신유학의 理氣哲學이나 義理名分論을 학문의 주대상으로 함으로써 점점 현실로부터 유리된 觀念論으로 발전해 갔으나, 후자는 形而上學的 이기철학을 배척하고 實用之學이나 時務之學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양자는 크게 달랐다.

실학자들이 파악한 조선후기의 기본문제는 國弱民貧이었다. 국약민빈의 내용은 인민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財政收入을 확보할 수가 없고, 충분한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軍隊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학자들의 학문적 지향은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富裕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強力한 軍隊를 유지할 수 있는가, 즉 富國強兵에 있었던 것이다.⁽¹⁹⁾ 실학자들은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이를 위한 產業的 對策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상업을 振興하여 物資를 국내외적으로 流通시킴으로써 생산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는 身分으로서의 士農工商은 名目뿐이고 그 내용은 보잘 것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공업은 겨우 그 명목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더구나 양반층의 말업관 때문에 떨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상인은 四民중의 하나로서, 상인이 존재해야 四民間에 물자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이렇게 되어야 물자의 使用價値가 증가하고 생산이 촉진된다는 것이다.⁽²⁰⁾ 더 나아가 상공업이 발전하면, 각 산업에는

(19) “開利用之監，議北學之法，以圖富國強兵，斯不可易也。” 丁若鏞，「邦禮艸本序」(前揭書，p. 206).

(20) “我人，創見中國市肆之盛，而曰專尙末利，此知其一，未知其二矣。夫商處四民之一，以其一而通於三，則非十之三不可，今夫人，食稻而衣錦，則其餘皆爲無用之物矣。然不有無用之用，以濟其有用，則所謂有用者，舉將偏滯而不流，單行而易匱也。故古昔聖王，爲之珠玉泉幣之等，以輕而敵重，以無而資有，復爲之舟車，以通其險阻，猶恐千里萬里之遠，有不能至者焉，其博施如此。今我國方數千里，民戶非不多也，土產非不備也，山澤之利不盡出，經濟之道未盡善也，日用之事，廢而不講，見中國之宮室車馬丹青錦繡之盛，則曰奢侈已甚。……不知所以用之，則不知所以生之，不知所以生之，則民日窮。夫財，譬則井也，汲則滿，廢則竭，故不服錦繡，而國

專門이 있게 되고, 전문이 있게 되면 생산품은 더욱 精巧하고 堅固하게 된다고도 하였다.⁽²¹⁾

둘째, 상업적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부유한 경제생활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자급자족체제하에서 농업은 자연히 穀農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상품경제가 발달한 조건하에서는 농업은 穀農, 園圃 및 養蠶 등의 多角經營이 가능했던 것이다. 종래와 같은 곡농에 있어서는 완력이 있는 농부가 아니면, 농사에 종사하기 어려웠으나, 원포와 양잠의 경우에는 識者層과 부녀자들도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농업경영은 많은 실학자에 의하여 理想的인 농업경영으로서 추천되고 있다.⁽²²⁾

위와 같은 상공업과 상업적 농업의 진흥에 있어서는 특히 사대부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실학자들은 사대부들이 實業을 천시하고 거기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이 진흥되지 않음을 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산업에 종사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대부들이 산업에 종사해야 산업의 營爲를 위한 學理를 講究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사대부들이 산업에 종사하는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²³⁾

이러한 실학자들의 산업관에 있어서는 성리학자들의 말업관이나 기술직 및 실무직에 대한 천시관이 적어도 理論的으로는 자연스럽게 극복되어 갔다. 여기에서 비로소 사대부들이 직업에 종사하는 의의, 즉 실학자들의 직업관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無織錦之人，則女紅衰矣，不嫌窳器，不事機巧，而國無工匠陶冶之事，技藝亡矣，以至農荒而失其法，商薄而失其業，四民具困，不能相濟。” 朴濟家，「市井」(前掲書，pp. 342-343).

(21) “然中州則業有顯門，技有師授，又四方才智之士，因其性之所通，各致其精，互相傳襲，而其城廓室廬車輿器用，違聖人數法者蓋寡，是以精緻牢固，無傷財害民之患，而我國則不然，諸有山澤之利，一皆歸之於修毀補弊之費，及其不能繼則曰，我國貧國也。嗚呼，國果貧乎，數法失其宜乎。” 徐命膺，「北學議序」(朴濟家，『北學議』，乙酉文化社，1971，p. 315).

(22) 丁若鏞의 경제생활에 관한 「贈言」은 대개 商業的 農業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題黃裳幽人帖」에는 선비들이 상업적 농업을 영위하는 한편 儒業에도 종사하는 理想的인 生活像이 묘사되어 있다. 朴趾源의 「伯嫂恭人李氏墓地銘」에도 위와 같은 이상적인 영농상이 묘사되어 있다.

(23) 아래의 자료는 士가 農工商의 技術·實務의 作業에 있어서 指導的 位置를 차지하여 實業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그 本務임을 강조하고 있다.

“若士則十指柔弱，不任力作，耕乎芸乎畚乎糞乎，名不得注於冊，則秋無分矣，將奈何。曰噫。吾所爲闢田之法者，正爲是也。夫士人也何人。士何爲游手游足，吞人之土，食人力哉。夫其有士之游也，故地利不盡闢也。知游之不可以得穀也，則亦將轉而緣南畝矣。士轉而緣南畝而地利闢，士轉而緣南畝而風俗厚，士轉而緣南畝而亂民息矣。曰必不得轉而緣南畝者，將奈何。曰有轉而爲商工者矣。有朝出耕夜歸讀古人書者矣。有教授富民子弟以求活者矣。有講究實理，辨土宜，興水利，製器以省力，教之樹藝畜牧，以佐農者矣。若是者，其功豈扼腕力作者所能比哉。一日之役注十日，十日之役注百日，以分其糧焉可也。士何爲無分哉。” 丁若鏞 「田論」五(前掲書，p. 224).

실학자들의 직업관은 유수·유족층의 解消를 위한 방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산업의 진흥과 유수·유족층의 해소는 表裏關係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실학자들의 직업관을 중심으로 직업관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직업관의 유형으로서 職分觀, 生業觀 및 天職觀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²⁴⁾ 여기에서도 실학자들의 직업관을 이 유형별 분류에 따라 고찰하기로 한다.

2.1. 職分觀

직분관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및 관직의 체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한 奉仕 또는 義務의 수행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부터 각자의 직업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이다. 조선후기에 이러한 직업관에 해당하는 용어로서는 國役, 身役, 職貢 및 職分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러한 용어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조선후기의 직분관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의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각자의 직업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사회가 중앙집권적 專制國家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직분으로서의 직업관이 널리 受容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의 직분으로서의 직업관에 관한 대표적 예로서는 茶山 丁若鏞(1762-1836)의 그것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산은 국가개혁안으로서 『經世遺表』를 저술하면서 그 일환으로서 『周禮』에 따라 국가가 인민들에게 “九職”, 즉 9가지의 직업을 分授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국가가 나누어주는 것을 “職”, 인민이 받은 것을 “(民)業”, 인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의 수행을 “職貢”, 이들을 통틀어서 “職業”이라 불렀던 것이다.⁽²⁵⁾ 여기에서 “民業”은 생업관으로서의 직업관이라고 할 수 있다면, “職貢”은 직분으로서의 직업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九職”을 『周禮』의 경우와는 약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다. 『주례』의 “구직”은 “三農 園圃 虞衡 藪牧 百工 商賈 嬪婦 臣妾 閒民”인 데 대하여 다산은 “田農이 一科요, 園廬이 일과요, 圃畦가 일과요, 嬪功이 일과요, 虞衡이 일과요, 畜牧이 일과요, 工商 臣妾과 합하여 마땅히 九職이 된다”고 하였다. “구직”의 설정에 있어서 『주례』와

(24) 平石直昭, “近世日本の<職業>觀”(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 『現代日本社會』(4 歷史的前提), 東京大學出版會, 1991)을 참조하라.

(25) “凡勸農之政, 宜分六科, 各授其職, 各考其功, 登其上第, 以勸民業 ○此非要今之守令便當施措也. 若田政大正, 百度成貞, 職貢如法, 萬民受業, 如余田制考所論, 斯可以議到也. 聊此附著, 以補田制之欠, 非謂今之守令案而行之也. ○田農爲一科治九穀, 園廬爲一科種百果, 圃畦爲一科種百菜, 嬪功爲一科出布帛, 虞衡爲一科種百材, 畜牧爲一科養六畜, 計工商臣妾, 當爲九職. …… 凡考功 …… 校其優劣, 視其職業 ……” 丁若鏞, 『牧民心書』卷七 戶典 六條 勸農.

다산간에 두 가지의 다른 점이 있는데, 첫째 전자는 원포를 한 과로 설정한 데 대하여 후자는 그것을 두 과로 설정하여 특히 중요시한 것이고, 둘째 전자는 모든 직업을 병렬한 데 대하여 후자는 “공 상 신첩”을 각각 독립된 한 과로 표기하지 않았다. 勸農의 입장에서 직업을 분류했기 때문이다.

다산이 원포, 즉 果樹와 蔬菜를 상업적 농업의 일환으로서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生業觀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다산은 그의 저서의 어디에서나 “九職”을 소개하면서 商·工을 특히 중요시한 곳이 없다. 그러나 다산은 개혁안에서는 도처에서 상공업의 진흥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다산은, 『경세유표』에서 土農工商의 居住地配置를 논하면서, 四民이 混居하게 되면 한 가지의 技藝도 이루어질 수 없으니 상공업자는 농민과 혼거케 하지 말고 마땅히 邑城중에 거주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제안하고 있다.⁽²⁶⁾ 이렇게 보면, 그가 “구직”을 제시함에 있어서 상공업을 특히 중요시하지 않은 것은 그의 다른 개혁안과 矛盾되는 것이다.

다산이 상공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모순된 직업관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상공업발달의 落後性 및 말업관과 상공업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상황간의 모순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사대부들의 遊民化 때문에 발생한 시대적 문제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사대부들을 여기로 轉業시키지 않을 수 없었지만,⁽²⁷⁾ 사대부들이 당장 이 직업에 從事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다산은 개혁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당장 상공업을 장려하고 사대부를 여기에 전업케 할 것을 권장하였지만, 자기의 가족과 친지에게는 상공업에 종사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밖에 없었다.⁽²⁸⁾

(26) “今我邦土農工賈，混雜無別，不唯一村之中，四民雜處，抑亦一身之內，四業兼治，此所以一藝無成，百事無法。然以田東之四四相續，則不可不從古也。雖其間有士族不農者，參錯介居，不可拘也。若夫工商二民，不可不聚之於邑城之中，管仲治濟之法，不可不遵見別篇。於是聚畝爲畝，積畝爲畝，合畝爲井皆聚合積算。凡四井之佃及坐於四井之界內者，東爲一村古法四井爲三十二家今不能然不可定數。” 丁若鏞，『經世遺表』地官修制，田制九井田議二。

(27) 주 14) 및 23) 등의 도처에서 이러한 勸告가 보인다. 朴濟家は 당시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中國과 通商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當今國之大弊曰貧。何以救貧。曰通商中國而已矣。” 朴濟家，丙午所懷(前揭書，p. 371).

(28) “雖然，赤脛入泥水中，執八齒耙，叱牛推輓，蜩針徧體，創夷無完，此男子困境，矧十指輒如葱者，雖欲自力得乎。不然，持錢櫃，坐浦口，伺遠島船來，與魚鬻子，苦口力爭，冀錐刀之未得，刻人以傳己，撒謊哄騙，眸子突露如鬱壘怒瞋，斯亦天下之至拙。不然，放子母錢，唆取四隣膏血，或期程有差，捉取尫羸罷匄，縣之馬柳，拔其鬚毛，擊其脛踝，一鄉爲虎狼，六親疾如仇敵。如是者，雖得貨如丘陵，不能保一世，必其子姓，有瘋邪癡狂，甘酒嗜色者，出而覆之。天網恢恢，疏而不漏，甚可懼也” 丁若鏞「爲尹輪卿贈言」(前揭書，p. 375)。

그러면 상공업의 장려와 말업관간의 矛盾은 어떻게 하여 극복하려고 하였던 것인가.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을 가장 명확히 제시한 실학자는 楚亭 朴濟家(1750-1805)였다. 그는 상인은 四民중의 하나이지만, 상인이 있어야 士農工間에 재화가 막힘 없이 유통되어 그 용도가 다양해짐으로써 使用價値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고래로 聖人들은 貨幣를 制定하기도 하고 재화를 千萬里의 遠方에까지 유통케 하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상업은 재화의 생산을 촉진하고 技藝의 발달을 가져온다고도 하였다. 그에 의하면, 비유컨대 재화는 샘물과 같은 것이어서 퍼내면 차고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인민들이 비단옷을 입지 않으면 絹織物業이 衰退하고 일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으면 陶磁器業도 衰退하여, 마침내 技藝가 망함으로써 四民이 다같이 失業하고 빈곤해 진다는 것이다. 그는 위와 같이 경제에 있어서 상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대부로 하여금 상업에 종사케 하기 위해서는 “높은 벼슬을 주어 이를 권하도록”(29)하였다.

19세기 중엽의 惠岡 崔漢綺(1803-1877)는 상업의 역할에 대하여 더욱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국내상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楚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開國通商에 관해서는 그 의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楚亭은 개국통상으로 외국의 문물을 수입하여 국내의 고루한 풍속을 개혁할 것을 기대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惠岡은 더 나아가 상인들은 각국 풍속의 奢侈와 儉素, 國禁의 條例, 運輸의 險夷 등을 詳探하는 것이니,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에 어둡고 보면 그 피해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惠岡은 楚亭보다 당시의 국제정세의 緊迫함을 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30)

그러므로 그는 상공업을 賤業으로 여겨 賤類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되고, 상공업자들에게도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상공업을 권장할 수 있는 길을 열되, 새로운 器具를 고안하는 자를 國工으로 삼고, 豊凶을 헤아려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土宜를 헤아려 운수의 편리를 도모하다가 국가에 큰 비용이 필요할 때 이를 조달하는 자를 國商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惠岡에 이르러서 사대부로서 상공업으로 轉業한 자가 아니라 상공인중 有能한 자가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31)

(29) 주 20)을 참조하라. 주 14)에서는 이를 “顯擢以勸之”로 표현하고 있다.

(30) “商賈之量度四方利勢，在於大氣運化者，各邦物產之豐，在於統民運化者。各國俗尚之侈儉，隨時詳探，酌輕劑重，衰多益寡，察國禁之條例，量運輸之險夷，一有失措，害將焉歸。國家之御商旅，明禁條定納算，關吏之侵害，通旅店之便宜，即瞻民用和有無之政教也。士農工之事務，有籍商而流通，如一身耳目口鼻手足，相須而濟事業，不可偏廢，亦即一體萬民之義也。若商業蕩敗，穀帛不能周通，政教無紀律，先自商民而現，民國規模之甦完，亦自商民而可見。” 崔漢綺，『人政』卷十一 教人門四 商賈(『明南樓叢書』二，大東文化研究院，1971, p. 202).

조선에 있어서는, 조선후기에 있어서까지도 四民중의 工商은 명목뿐이고 그 實質은 매우 빈약했으며, 더구나 말업관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 大勢는 상공업의 발달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으며, 이것없이는 유민과 빈곤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선진적 실학자들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업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遊民화된 사대부들이 상공업으로 전업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대부들이 상공업으로 전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말업관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실학자들은 이 말업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에서 상공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론회하는 동시에 상공업이 專業化되는 경우 상공업의 발달에 있어서 사대부들이 담당해야 할 役割을 밝히고, 상공업의 발달에 공헌이 많은 상공인에게도 관직을 授與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실학자들이 제시하는 상공업에 대한 職業觀은, 생업관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공업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奉仕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職分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인들의 직업관에 있어서 직분관적인 측면이 강한 것은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開化期의 한국인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俞吉濬에 있어서는, 직업윤리와 애국정신이 綜合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그는, “商賈의 業을 자기의 1人私事로 勿視하고, 全國의 公本된 관계로 思量함이 可하다” (『西遊見聞』, 1985, p. 367)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직업윤리관은 국민경제에의 寄與가 전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³²⁾

2.2. 生業觀

생업관은 자기 혹은 자기가 속하는 가족의 生活手段을 획득하는 방책으로서 직업 내지 일반적으로 勞動을 이해하는 견해이다. 조선후기에는 이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產業, 民業, 治家 및 治生 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생업관으로서의 직업관도 고대로부터 있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1) 「百工之備器用, 以便事爲善, 以膠固爲上. 有機括者, 俾適氣數, 便利其制, 是爲國工, 是亦順效運化之氣也. 雕琢巧僞之飾, 欺民取賄, 當禁之工也. 商賈之貿遷有無, 以瞻民用爲事業, 以貪取贏爲羞恥. 洞豐稔而有常平之規, 量土宜而裁運輸之便, 邦有大費, 誠義補用, 是爲國商, 亦出於承順運化氣也. 競鬻無用之貨, 滋漫淫侈之弊, 不顧民用之利害, 惟喜肥己之厭飫, 當禁之商也. 商工之業, 猶以運化之通不通, 民用之利不利, 爲貴賤優劣. 用人之道, 兼得百工商賈之事, 勸懲百工商賈之業, 其可不達氣數而能濟治安乎. 末俗商工爲賤業, 任置于營營苟食之輩, 至使商工之人, 漸至賤陋, 用人之道, 何獨不行於商工乎. 人生原無士農工商之定限, 朝廷惟有人品貴賤之取捨.」崔漢綺, 『人政』卷二十五 用人門六 商工通運化(『明南樓叢書』三, 大東文化研究院, 1971, p. 222) 妖 天

(32) 趙景達, 前揭論文, pp. 135-136.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생업으로서의 직업관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가 아닌가 추측된다. 그것은 재지양반층의 유수·유족화의 문제와 관련되면서 발전하였다. 앞의 직분관이 유수·유족층의 상공업에의 從事과 관련하여 발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루려는 생업관은 유수·유족층의 商業的 農業으로의 전업과 관련하여 발전한 것이다. 양반층의 영농에의 종사는 본래 말업관을 극복해야 하는 바와 같은 道德的인 制約이 없을 뿐더러 양반층의 경제활동의 本領이었기 때문에 보다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양반층이 그들의 경제적 생활을 안정시킨다고 할 때, 우선 고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안정화의 대상이 되는 兩班家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世居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재지양반층의 가족형태인데, 이 가족형태는 재지양반층이 형성되면서 四大祖인 同高祖를 모시는 宗家와 父母·夫婦·子女로 구성되는 支家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가족들이 모여서 同姓同本の 보다 큰 동족 집단을 이루고, 이것을 共同先祖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이라 생각하는 관념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同高祖를 모시는 堂內라야 한 ‘집안’이라는 가족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³³⁾

그러면 종가와 지가간의 관계는 어떠했던가. 조선후기에는 이미 종가와 지가도 異戶別産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종가나 지가가 모두 하나의 自立的 家族으로서 존립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이 시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양반가라고 하더라도 支家の 自立性은 매우 취약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종가를 君長으로 삼고 단결함으로써만 가족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었는데, 이 때의 가족은 종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⁴⁾

그들이 종가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우선 종가에서 後嗣가 끊어지면 반드시 養子를 세우는 것이다. 다산은 지가는 君長이 아니므로 후사가 없더라도 양자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까지 하였다. 둘째, 종가의 經濟的 基盤을 튼튼히 하는 일이

(33) 주 34)와 아울러 검토해 보면, 아래의 자료는 古代에는 大夫까지만 家가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同高祖의 종가도 이미 家로 성립해 있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

“古者卿大夫之有家也，猶天子諸侯之有國，故有家臣家宰，千乘之家，百乘之家，家蓋有君有長，非如今異宮別戶之謂家也。故孟子，曰大夫何以利吾家，士庶人曰何以利吾身，豈孟子之時，士庶人露身野處乎。蓋不謂家耳。既未成家，斯無君長，身死則已，無位可傳，曷爲立後哉。” 丁若鏞，「立後論」二(前揭書，p. 229)。

(34) “私族五世，則祖遷而服窮，雖嫡嫡相承，至於十世者，五世以往，支子之孫，各自爲宗，而不以是爲宗，則不宜取其子爲後也。禮爲人後者，爲之斬衰，而降其父母，期者以尊祖也。尊祖故受重，受重故降其私也。” 丁若鏞，「立後論」三(前揭書，pp. 229-230)。

다. 경제적으로 지가가 증가를 도와야 함은 물론 상속에 있어서는 長子優待相續을 행했다. 셋째, 宗家優待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했다. 증가가 공이 되고, 지가가私家 됨으로써, “先公後私”가 宗家護衛의 이데올로기 되었다.(35)

위의 가족관계에 관한 설명은 결국 營農主體로서의 농가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다. 그러면 각 농가들은 어떠한 영농을 指向하였던 것인가. 조선후기에는, 아직도 자연경제가 壓倒的이었으나, 상품경제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다. 어느 정도 상품경제가 발전된 곳이라면 곡농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고 상업적 농업을 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고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모든 농가가 상업적 농업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던 듯 하다. 어느 정도의 농지와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재지양반층이 상업적 농업을 擔持할 수 있는 주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36)

상업적 농업을 행하는 경우, 영농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곡농, 둘째는 園圃, 셋째는 양잠이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문은 각각 相異한 노동력에 의하여 담당된다. 곡농은 노비나 농부가, 원포는 士大夫가, 양잠은 부녀자들이 각각 담당한다는 것이다. 상업적 농업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원포와 양잠이 특히 중요시되었다.(37)

원포와 양잠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원포와 양잠은 商品作物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장사치의 취급을 받을 염려도 없었다. 둘째, 원예작물은 集約的 耕作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농부와 같은 역센 완력이 없는 사대부들도 영농에 종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대부들의 노동에 오히려 적합한 것이었다. 셋째, 사대부들이 營農에 종사하게 되면, 實學의 일부로서 각종의 영농방법을 考案할 수 있다.

(35) “人之所以不仁，以私意間之也。於是播一草，壅一木，必默座商量，曰是終爲我有乎，抑爲彼所傳世者乎，我則護之，彼則睨之。一甌缺，則大厦將崩，舍之曰彼唯我疏屬之所寢興也，一磔拔，則大陂將竭，舍之曰彼唯我疏屬之所灌溉也。得一張紙，歸而補妻之牖，獲一樞木，歸而造兒之案，瓊瑣屑屑，用心奸細，冀以聚其財產，厚其基業，不知藪之旣焚狐兔焉，宅池之旣竭鯢奚穴。蓮谷旣顛，舉族何衣。賢輩苟不能登敷崇顯，以大門戶，須從閨闈之間極壤小，至猥雜之事，惕然警省，先公後私，以扶我棟樑將顛之外家，豈非仁孝盡分人耶。” 丁若鏞，「爲尹鍾文鍾直鍾敏贈言」(前揭書，p. 371)。

(36) 拙稿，「茶山の 農業經營論」(『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下，창작과 비평사，1990)을 참조하라.

(37) “貧士慮營產業勢也。然耕作力倦，商販名敗，唯手治園圃，種珍果芳蔬，雖王戎鑽李雲卿，粥爪無傷也。須有名花奇竹，以文其織齋，亦知謀也。每春雨初霽，持小長，斷磔，鋤蒿萊，整溝畛，別種類，播之時之，歸爲小詩數十篇，做石湖遺韻。復種荊桑魯桑，須至數千株，別室三間，爲箔七層，令室妻勤，養之行之，數年，米之具，當不煩夫子矣。” 丁若鏞，「爲尹惠冠贈言」(前揭書，p. 375)。

위와 같은 多角經營을 위해서는 전가족노동력을 연소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가족구성원은, 각각 “職業을 分授”하여, 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자가 있어서 안되고, 잠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³⁸⁾ 이들이 지켜야 할 노동윤리로서는 “勤儉”의 두 자를 들었는데, 그 요체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衣食을 儉素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³⁹⁾ 그리고 근검은 성격 내지는 嗜好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⁴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대부들로 하여금 영농에 종사케 한 것은 遊民의 防止策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지주제에 의존하여 유업을 핑계로 無爲徒食하는 것은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고 농업경영을 불안케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대부들이 영농에 종사하게 되면, 農業經營도 안정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營農方法의 고안이 기대되기도 하였다. 사대부들은 영농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學問의 研鑽에도 종사하는 만큼 새로운 영농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⁴¹⁾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 있어서는 비록 사대부층이라 할지라도 육체노동을 행함이 倫理的으로 정당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38) “汝兄弟每云，力弱不任事。是汝曹每欲責拔山於 僥，故患其力弱也。御家之法，上自主翁主母，以至男女長幼昆季之倫，下逮奴婢之雛，凡過五歲以上，各有職業分授，無一刻游息，則不患其貧窶也。余在長，主人成某，有穉孫女僅五歲，使之坐庭 薦，有七歲者，使以手驅雀，餘凡食於錡者，有職責，此可法也。家有老翁，絢葛爲繩，而 管執一箇絲子，紬繹在手，雖適隣里，不舍焉者。此家必有餘食，不患貧也。” 丁若鏞，「學游家誠」(前揭書，p. 381).

(39) “余無宦業，可以田園遺汝等。唯有二字神符，足以厚生救貧，今以遺汝等，汝等勿以爲薄。一字曰勤，一字曰儉，此二者，勝如良田美土，一生需用不盡。何謂勤。今日可爲，勿遲明日，朝辰可爲，勿遲晚間，晴日之事，無事在苒值雨，雨日之事，無事遷延到晴。老者坐有所監，幼者行有所奉，壯者任力，病者職守，婦人未四更不得寢。要使室中上下男女，都無一個游口，亦無一息間晷，斯所謂勤也。何謂儉。衣取掩體，細而敝者，帶得萬古淒涼氣，褐寬博，雖敝無傷也。每裁一領衣衫，須思此後可繼如否，如其不能，將細而敝矣。商量及此，未有不捨精而取疏者。食取延生，凡珍腴美鱗，入脣卽成穢物，不待下咽而後，人唾之也。” 丁若鏞，「又示二子家誠」(前揭書，p. 379).

(40) “人家次子未析產，凡園圃樹藝之政，了不看檢，其心以爲，他日別占一區，將盡意營度。不知此事本出性癖，不能於其兄之園者，亦不能於其園。汝觀吾於地臺田圃之事，盡心竭力，亦將取爲己物，遂以傳之子孫而然乎。誠由性之所好，無此疆爾界耳。” 丁若鏞，「學游家誠」(前揭書，p. 381).

(41) “聞汝養雞，養雞固善。然養雞之中，亦有雅俚清濁之殊，苟能熟讀農書，擇其善法而試之，或別其色類，或異其埤架，使雞之肥澤繁衍，勝於他家，又或作詩，寫雞情景，以物遺物，此讀書者之養雞也。若見利不見義，知窶不知趣，孳孳滾滾，與隣里圃老，早莫爭鬪者，此直三家村里拙夫子之養雞也。未知汝何所安既養雞矣。須將百家書，抄取鷄說，彙次作鷄經，如陸羽茶經，柳惠風之煙經，亦一善也。就俗務，帶得清致，須每以此爲例。” 丁若鏞，「寄游兒」(前揭書，p. 449).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생업관은 직분관에 있어서 기술직과 실무직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된 점과 더불어 한국의 직업관에 있어서 하나의 劃期的인 轉換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새로운 직분관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술직과 실무직의 종사자들에게 관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듯이, 새로운 생업관에 있어서는 사대부들의 영농에의 從事가 사대부들이 儒業을 닦아서 仕宦으로 나아가기 위한 생활의 方便으로서 그 위치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생업관의 不徹底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2.3. 天職觀

마지막으로 천직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천직관은 보편적인 天의 理念으로부터 하늘이 만민에게 부여하는 天命이라는 견지에서 직업의 의미를 규정하는 견해이다. 조선 후기에 天職의 용례를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에 해당되는 용어로서는 天命, 天爵 및 天分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그 용례를 한두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하의 천직에 관한 것인데, 仕宦의 길에 오르지 못한 사대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天命”에 순응하여 원포에 종사함으로써 그 “天爵”을 즐기는 것이 道量이 있는 자의 寬大함이라 했다.⁽⁴²⁾ 둘째는 인민들의 천직에 관한 것인데, 부귀한 자로 운명지워진 사람은 부귀하게 살고 貧賤하게 운명지워진 사람은 빈천하게 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천명을 다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다.⁽⁴³⁾ 개화기에는 한국인들이 구미의 천직관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때의 천직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조선후기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⁴⁴⁾

그런데 위와 같은 천직관은 근대적 직업관으로서의 천직관과는 거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적인 천직관은 所與의 직업에 適從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근대적 천직관은 職業選擇의 契機를 내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

(42) “在周易，履之无妄，曰幽人貞吉。余釋之，曰良山之下，震林之間，巽以隱遯，仰順天命，或蒔良菓，或種震菜，履大道而坦坦，樂天爵以熙熙，此頌人之寬也，幽人之事，不己吉乎。” 丁若鏞，「題黃裳幽人帖」(前掲書，p. 306).

(43) “如嚴行首者，豈非所謂穢其德而大隱於世者耶。傳曰，素富貴，行乎富貴，素貧賤，行乎貧賤，夫素也者定也。詩云，夙夜在公，寔命不同，命也者分也。夫天生萬民，各有定分，命之素矣。何怨之有。” 朴趾源，「穢德先生傳」(前掲書，p. 116).

(44) “人の生命은 活動에 在하니，人이 萬一此世에서 勞力을 卑賤厭惡하는 者は 此世에서 生存함을 不許하니，如此한 人은 死함이 可할지라。農者は 節期를 不失하고 農業에 勤勉從事하며，商者は 商業에 忠實하고，醫者は 活人에 不怠하며，仕者は 仕者의 責任을 盡하고，學生은 學生의 職分을 盡하여，如此히 人人이 各者의 天職을 盡하여써 生命의 資本을 供給함은 人生人活의 原則이라。” 朴載瀨，「習慣改良論」(『大極學報』第十號，1907，p. 13).

천직관은 밖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 默從할 것을 강조하는 데 대하여, 근대적 천직관은 노동을 통하여 과연 자기가 그 직업에 召命되었는지를 確認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천직관에 있어서는 왜 이 “選擇의 契機”가 결여되어 있었을까. 그 배경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企業을 創業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도 거의 없었던 것이다. 둘째, 재지양반층은 물론 실학자들까지도 중앙관직으로의 진출에 傾倒된 나머지 民業을 起業하는 데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못하였다. 실학자들은 국가사회의 改革을 위해서는 實業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했지만, 자기의 천직으로서 실업을 선택하려는 자세는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있어서는 근대적 천직관의 萌芽마저도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맺 음 말

필자가 그 책임자로 있는 (社)落星臺經濟研究所는 日本의 總合研究機構의 의뢰를 받아서 1996년도에 자동차메이커 K기업과 그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韓國人の勞働價値觀に關する從業員アンケート調査”를 실시한 일이 있다. 그 조사의 조사항목은 일본의 (株)日立總合計劃研究所가 『産業勞働における勤勉性に關する研究』를 위하여 1983년도에 실시한 조사의 조사항목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조사자료의 분석결과 양국의 산업노동자들의 勞働價値觀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아마 양국의 傳統的 노동가치관이 여러 가지로 상이한 점이 많으면서도 儒敎的인 “勤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이 1987년 이후에 급격하게 先進國化의 현상을 보이면서 양국이 同質的인 사회로 되고 있다는 사실의 결과가 아닐까 추측된다.

그러나 노동가치관에 있어서 양국간에는 상이점도 많았다. 첫째는 노동의 목적에 있어서, “生活을 위한 收入의 確保”가 한국 60.2%, 일본 65.7%로서 양국이 서로 비슷하지만, 그 다음으로 한국은 “自己의 能力을 發揮하기 위하여”가 19.2%로 높았고, 일본은 “人間으로서 當然하기 때문에”가 17.3%로 높았다. 한국인은 노동을 手段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데 대하여, 일본인들은 노동을 目的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둘째, 勤勉性을 결정하는 각 요소인 노동의 목적, 근로의욕, 생활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및 회사에의

로열티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근로의욕과 회사에의 로열티간의 상관관계는 0.40069로서 높은 편이나 다른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는 0.2대로서 낮은 데 대하여, 일본의 경우는 네 요소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0.3-0.4대로서 한국의 그것보다 높았다. 즉 한국인의 근면성은 회사의 施策에 의하여 쉽게 좌지우지되는 미성숙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인의 그것은 일 그 자체에 무게를 두는 성숙한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조선후기의 직업관과 오늘날의 한국산업노동자들의 노동가치관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양자간에는 시기적으로 100년 이상의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農業社會와 工業社會라는 질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서로 맞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조선후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술직과 실무직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末業觀 따위는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국인의 노동가치관은 현재의 도달 수준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1987년 이후 한국에서는 임금이 선진국의 수준에 필적할 만큼 상승하고 이 임금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과대한 설비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대응하는 노동생산성의 확보가 불가능하였던 것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노동의욕이나 설비투자만으로써 달성될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임금의 상승에 대응할 만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없었던 것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生計獲得이나 自己能力發揮의 手段으로만 인식함으로써 노동의 結果에 대해서는 無關心한 바에 기인하는 점도 있지는 않은가. 조선후기의 직업관에 있어서 아직도 그 맹아조차 보이지 않았던 近代의 天職觀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아직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 점이 한국인의 직업관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검토되어야 할 과제일 것으로 믿는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68

팩시: (02)888-4454